



고교 재학 시에 장학금을 수급하고 오늘도 공부에 열중하는 대학생들

The
Foundation
for
Korean
Students
in Japan

공익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고대 이집트에서 "녹색"는 식물의 움 틈을 따서 '영원한 생명'이나 '재생,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본 재단은 "녹색"을 이미지 컬러로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회생에 기여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일반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설립, 등기
- 2011년 11일 6일 동일본대진재로 피재한 재일조선학생을 지원
- 2012년 2월 20일 일본 내각부가 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
- 2012년 3월 9일 2011년도 장학금 지급 (16명 대학생, 대학원생만)
- 2012년 12월 4일 2012년도 장학금 지급 (34명 고급학교학생들에게도 적용시작)
- 2013년 12월 3일 2013년도 장학금 지급 (51명)
- 2014년 5월 8일 공익재단법인 공익법인협회가입
- 2014년 5월 16일 내각부가 새사업인정

공익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대표 이사
박 영 응



총리대신 명의 인정서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발족한 본 재단도 벌써 4 기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막대한 피해, 각종 장학 제도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적용 제외, 정치적 이유에 의한 자치체에서 보조금 삭감 등 재일 코리안 학생을 둘러싼 배움의 환경은 나날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선의를 모아 기부를 주신 그 분들의 마음까지도 담아 불우한 입장에 있는 재일 코리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이 3 연간을 저희는 지금 감회 깊이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에 따라 본 재단과 그 활동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 년의 구분을 계기로 본 재단을 더 스텝 업시켜, 장학 사업, 국제 교류 조성 사업에다 '톱 애슬리트, 톱 아티스트 육성 조성 사업'도 새롭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본 재단의 활동 취지에 찬동해 주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국적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폭넓게 협력을 받아, 모금 대상을 후지산의 저변처럼 넓혀 재일 코리안 학생의 육성에 더욱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재단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재단의 '재일 조선 학생'은 국적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그 출신이 한반도이고 현재 일본에 영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학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교법이 정하는 '1 조교' 학생이 아니므로 응모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응모는 할수 있지만 전형 결과에 따라 장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고있는 재일 코리안 학생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다문화 공생의 실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장학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한 재일 코리안 학생으로 학업 및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지불이 곤난한 학생입니다.

년	월	일	총금액 (만엔)	대상		계
				고교생	대학· 대학원 생	
2011년도	2012	3	576	0	16	16
2012년도	2012	12	756	19	15	34
2013년도	2013	12	972	35	16	51
합계			2304	54	47	101



■ 국제 교류 조성 사업



◀ 학술문화교류 (독일)

▶ 제 12 회 남북조선과
일본의 어린이전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국제 간의 협약 등 교육적인 견지에서 재일 코리안 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본 재단에서는 일본과 재일 코리안 대학생 우호 네트워크 사업, 독일 대학과의 학술문화 교류 사업, 다마가와 상수 청소 자원 봉사 사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을 공모하여 일본과 재일 코리안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톱 애슬리트 , 톱 아티스트 육성 조성 사업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일 코리안 학생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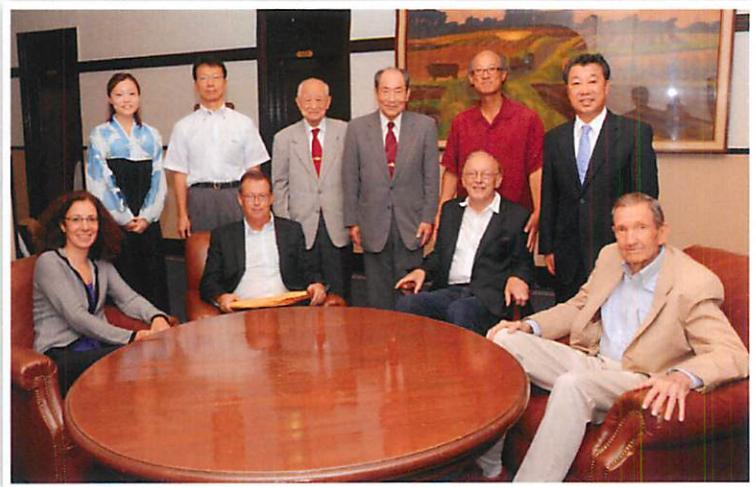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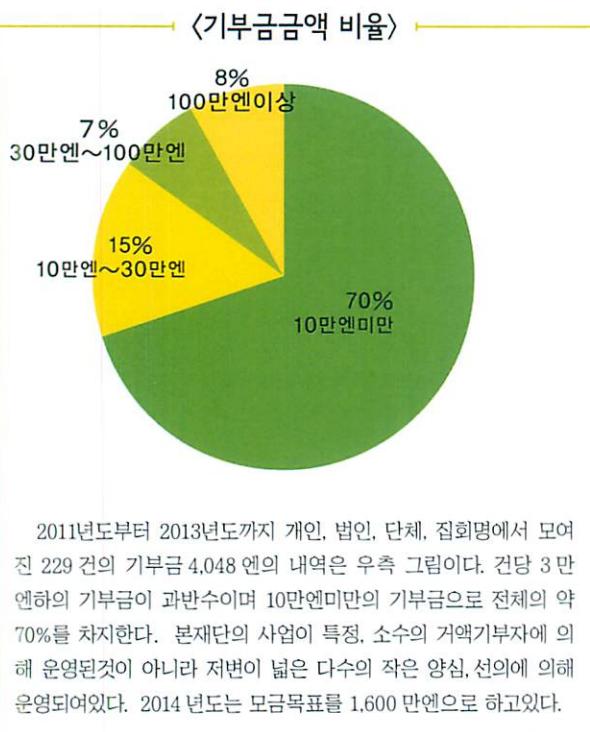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까지만 해도 올해 가을 아시아경기대회(인천),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 2019년 가을 럭비 월드컵 (일본 각지) 등 이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가득합니다. 이런 마당에 젊은 장래성 있는 재일 코리안 인재가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것은 모두의 꿈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재일 코리안이 활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지원해 나갑시다. 아울러, 음악, 미술, 민속 무용 등 예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도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 나갑시다.



목표는 금메달!

우리 꿈 - 올림픽에 재일에서 대표를!



말라 바르
헤이든 힐리 어드
국제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베커
"반전 반인권 차별
행동"(ANSWER)
사무 총장
미 시엘
치요 스 도프 스키
캐나다·오타와 대학
명예 교수
윌리엄 램지 클라크
미국 제 66 대
법무 장관
Mary Bono-Martin Brian Becker Michael Chertoff Romeo Clark

재일 조선 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려는 찬동자들은 일본, 조선반도, 중국 등 동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학 사 업	9월	모집요령 공시	11월 초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11월 하순	이사회의 승인	12월 중순	년1번 지급
국제교류사업	2월	모집요령 공시	5월 초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5월 하순	이사회의 승인	6월 중순	년1번 지급
인재육성사업	2월	모집요령 공시	5월 초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5월 하순	이사회의 승인	6월 중순	년1번 지급

※조성대상에 대해 10만엔을 상한으로하여 조성할 것이다.
※조성대상은 하나의 사업, 하나의 개인에 대해 30만엔을 상한으로하여 조성할 것이다.

사업목표 및 내용

이 법인은 재일조선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그 취학을 지원하고 국제성풍부한 인재를 육성하므로서 일본과 한반도의 우호친선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벌립니다.

- (1) 재일조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2)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조성사업
- (3) 국제적으로 활약될 톱 애슬리트, 톱 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조성 사업

특정기부금도 접수합니다.

특정기부금은 기부자가 그 용도를 특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부금의 세금 공제에 대하여

공익재단법인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에로의 기부는 새로운 기부 세금제도에 근거하는 〈세액 공제〉 적용법인으로서의 인증을 받고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공익성이 높은 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

1-700, Ogawa-cho Kodaira-city TOKYO, 187-0032,Japan TEL,FAX : +81(0)42-346-0520
<http://www.zainichisienkai.or.jp/>

미스비시도쿄 UFJ 은행 다카노다이출장소 (보통예금) 0039619
 공익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